

인간 행동 예측 'AI' 기업에 투자... 자율주행 한발 성큼



美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업
자전거·차량 주변상황도 예측
“잠재력 지닌 업체 발굴해 투자”



‘퍼셉티브 오토마타’의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차에 적용돼 차량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상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생 벤처기업)과 손잡고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미국 AI 스타트업인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스마트 시티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2014년 설립됐

다. 이 회사는 각종 센서와 정신물리학에 기반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객관적 분석뿐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접목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단순히 외부 사물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공동연구에 속도를 낸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퍼셉티브 오토마타의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과 융합될 경우,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데 독특한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또 자전거와 차량 주변 상황을 예측하고, 인간과 유사한 사고 판단력을 활용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건물목에서 있는 사람이 신호등에 맞춰 건널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할지를 미리 예측해 판단할 수 있다. 자전거가 도로 갓길을 달리고 있지만 기존 이동 방향으로 보았을 때 차가 달리는 도로로 급작스럽게 뛰어들이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인간이 행동을 예측하는 기술은 현대차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보틱스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서 현대차 미국 오픈 이노베이션(개발형 혁신) 센터 상무는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인간의 직관력을 접목시키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라며 “현대차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을 지속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 실현을 위해 중국 스타트업 딥글린트와 협업하고 있다. 딥글린트는 비전기술을 활용해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총 4500만달러 규모의 ‘AI 얼라이언스 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5MW 런던 주택용 태양광에 한화큐셀, 고출력 모듈 공급

한화큐셀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1.5MW 규모 주택용 태양광 프로젝트 ‘솔라 투게더 런던’에 고출력 프리미엄 모듈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런던 시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현지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런던 내 5개 자치구 약 600개 가구에 고출력 모듈 ‘큐피크 듀오(Q.PEAK DUO)’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무탄소 도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런던 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각 가정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시작했다.

런던 내 각 자치구는 지난 6월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8월 태양광 시공업체 간 역경매를 진행했다. 추후 각 자치구는 신청자들에게 설치 희망여부를 재확인하고 선정된 시공업체와 함께 태양광 시스템 공동구매 및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한화큐셀이 공급할 큐피크 듀오는 제품 출력과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쉐딩 기술에 태양광 셀을 반으로 잘



영국 런던 주택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한화큐셀

라 저항 손실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하프셀 기술이 적용된 고출력 단결정 모듈이다.

지난 7월 국내에도 출시된 큐피크 듀오는 기존 제품 대비 출력이 대폭 향상돼 일반 주택의 좁은 지붕에서도 많은 발전량을 보장한다. 일반 태양광 모듈은 그늘이 있을 경우 발전 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데 큐피크 듀오는 모듈 상하단 분리 발전을 적용, 모듈 한쪽이 그늘에 가려져도 다른 한쪽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구조물이 많은 도시에 적합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SK하이닉스 35돌 “We Do Technology”

기술 중심 새 슬로건 도입

사람·기술 연결하는 반도체 향상화
임직원 명함 등 내부 콘텐츠도 제작

창립 35주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라는 회사 정체성과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위 두 테크놀로지(We Do Technology)’를 새 슬로건으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 관리체계는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담은 회사 정체성과 이를 간명하게 표현한 슬로건 등으로 구성된다.

SK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은 최근 사내공지를 통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잡해진 경영환경과 무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무성과뿐 아니라 기업 문화, 경영시스템 등 모든 측면에서 ‘베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새 슬로건 ‘We Do Technology’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있다. /SK하이닉스

스트 인 클래스’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중심 회사’라는 한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힘을 결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고객, 구성원,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K하

이닉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기술, 집념, IT 생태계 주도, 사회적 가치 등이 나왔고, 이 키워드들을 브랜드 구성 요소에 핵심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홍보담당 김정기 상무는 “이번 새 슬로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이라며 “기술 개발로 성과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슬로건 문구 중 ‘Do’를 연결고리 형태로 디자인해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반도체의 역할을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는 향후 광고, SNS콘텐츠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슬로건을 적용하며, 임직원들의 명함, 수첩, 사내방송 등 다양한 내부 콘텐츠도 브랜드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전자 15.6인치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출시

LG전자가 10일 게이밍 노트북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했다.

15.6인치의 화면부터 성능까지 최고급 사양을 갖췄다. 이 제품은 1초에 화면을 144장까지 보여준다. 이는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수준으로, 노트북에서 화면 주사율 144Hz(헤르츠)를 구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사율이 높으면 화면이 빠르게 변하는 슈팅게임 등에서 화면 전환이 부드럽다. 이용자는 어지럽증을 덜 느끼고, 의도한 대로 정교하게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적용해, 게임 화면이 찢어지거나 깨지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또한 인텔 프로세서 최상위 버전인 i7-8750H를 탑재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메모리는 기존 DDR4 2400MHz(메가

헤르츠)보다 뛰어난 DDR4 2666MHz다. 용량은 16GB(기가바이트)다. 엔비디아의 GTX 1060 그래픽카드는 복잡한 게임 화면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 제품은 256GB용량 SSD저장장치를 갖췄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512GB까지 적용할 수 있고, 최대 1TB(테라바이트)의 HDD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전송속도가 빠른 USB 3.1C-타입, HDMI, 미니 DP 등 단자를 갖췄다. 모든 단자가 4K 게임 화면을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낸다. 사용자는 기호에 맞게 아무 포트나 이용할 수 있다. 81Wh(와트시)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외부에서도 게임, 고성능을 요하는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다.

제품 출하기는 289만원이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로봇박람회 ‘2018 로보월드’ 참가

현대로템이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로보월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로보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박람회로, 전세계 20개국 200개 업체가 참가하고 6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2만5000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전망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대로템은 미래 신사업인 로봇부문 경쟁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를 전시 표어로 삼고 다양한 웨어러블 및 이동 로봇을 선보인다.

특히 현대로템은 자체개발 중인 전기 구동방식의 보병지원용 소형 무인차량 HR-SHERPA(셰르파)의 콘셉트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HR-셰르파는 목적에 따라 화력지원, 감시정찰, 물자후송 등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한 무인차



‘2018 로보월드’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량이며 원격조종 기능과 차량 앞 범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12km의 달리기 속도를 발휘하는 하체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HUMA ▲작업 시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켜주는 모듈형 웨어러블 로봇 RMX ▲80kg의 물체를 가볍

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산업용 유압식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을 전시한다.

더불어 올 8월 체계개발이 완료된 장애물 개척전차 모형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무인원격조정장치를 함께 선보인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와 굴삭팔을 갖춰 지뢰 및 장애물 지대를 극복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